

## 불행과 죽음과 추억 묻어나는 기억 속의 책

로맹 롤랑의 《베에토벤의 생애》

이현주 | 출판칼럼니스트

사람에 대한 기억은 그를 둘러싼 사물들의 집합이다. 그것이 책이라면,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결코 휘발되지 않는 추억을 하나 가진 셈이다. 《베에토벤의 생애》는 내 가슴을 뛰게 했던 사람이 아끼던 책이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불행한’ 베토벤이다. 그 사람 역시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리라 생각하니, 책을 펼치자마자 마음이 아파왔다.

신촌의 헌책방을 훑다가 책 한권을 본다. 누군가의 손에서 닳고 닳다가 이삿짐에 따라가지 못하고 온 것인지, 서점 한켠에서 주인을 기다리다 그저 늙어버린 것인지, 몹시 낡고 오래된 책이다.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문고본 로맹 롤랑의 《베에토벤의 생애》. 발간된 해는 1972년이다. 그 책을 보자마자 내 마음 속에 투명한 연두색 별레가 툭 떨어진다.

‘500원’의 책값을 매겨놓은 그 책을 냉큼 사 들고 나오면서 사람에게 대한 기억은 그를 둘러싼 사물들의 집합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책이라면,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결코 휘발되지 않는 추억을 하나 가진 셈이다. 《베에토벤의 생애》를 들고 나오면서 마음 속에서 일제히 일어나 펄럭이는 추억들로 한동안 마음이 수련겨졌다. 그렇다. 《베에토벤의 생애》는 내 가슴을 뛰게 했던 사람이 아끼던 책이었다.

### 산중의 별지기를 지켜주던 악보와 책

이 책을 처음 본 것은 별 보는 일이 직업이었던 그 사람이 머물던 산중에서였다. 친구들과 함께 산을 올랐는데, 비가 몹시 온데다 익숙치 않은 길이라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날이 저문 상태였다. 동행한 친구의 선배였던 그 사람의 방에서 처음 본 것은 엄청난 양의 클래식 CD였다. 언제나처럼 나의 눈은 책꽂이에 가 머물렀고 거기서 베토벤의 교향곡 악보와 나란히 꽂혀 있는 이 책을 봤던 것이다.

그 책에 눈길이 머무는 걸 보았는지, 그 사람은 음악으로 개인적 불행을 뛰어넘은 불굴의 정신을 운운하는 촌평을 곁들였던 기억이 난다. 혼자서 연모의 마음을 품고 편지를 보내다가,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될 때까지 베토벤은 그 산중의 방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던 연두색 별레와 함께 그 사람을 기억하는 중요한 열쇠가 됐다. 헌책방에서 이 책을 다시 본 것은 그로부터 4년여가 흐른 후였다. 설렘의 기억조차 희미해진 때였다.

책은 다음과 같은 베토벤의 말로 시작된다. “옹게 또 땃땃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오직 그러한 사실만으로써 능히 불행을 견디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입증하고 싶다.” 예술가의 위대한 정신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온 지은이 로맹 롤랑이 굳이 이 말을 첫머리에 놓은 것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의 주인공은 ‘불행한’ 베토벤이다. 그 사람 역시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리라 생각하니, 책을 펼치자마자 마음이 아파왔다.

베토벤의 생애는 불행했던 어린 시절, 음악가로서 청력을 잃기까지의 고통, 계속 실패하기만 한 사랑, 외로움과 가난, 믿었던 이들이 주었던 상처들로 가득 차 있었다. 1822년 ‘피델리오’ 공연의 지휘를 포기해야만 했던 일이며, 말년까지 그 초상을 간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냈던 테레제 폰 브룬스비크와의 파혼, 동생 카알의 죽음과 어렵사리 양육권을 얻었던 조카의 자살미수 사건을 겪는 동안 음악은 유일한 진통제였다.



로맹 롤랑 지음 | 이취영 옮김  
문예출판사/85번형/158면/300원

그런 사건마다 어김없이 음악이 남았다. 교향곡들과 피아노 협주곡들을 훑어가면서 책과 함께 꽂혀 있던 그 사람의 음반 목록을 짐작할 수 있었다. 헌책방에서 사온 《베에토벤의 생애》를 그렇게 다 읽자 책은 추억과 함께 책꽂이에 얽매듯 꽂혀 있게 됐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한 달 후 뜻밖에도 그 사람이 사고로 비명에 갔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꽂혀 있던 책을 꺼내봤다.

### 비참할 때 우리 곁에 와 준 사람

드문드문 넘어가는 페이지 속에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베토벤의 모습이 보였다. 보헤미아의 온천지 테플리츠의 숲길에서 귀족을 만났을 때, 길가로 물러서 머리를 깊게 숙이는 괴테와는 달리 귀족 앞을 당당히 통과하는 베토벤, 합창을 교향곡 안에 넣는 모험을 감행하고 그 초연에서 들리지 않는 박수 갈채를 받는 베토벤. 그 사람이 베토벤의 생애에 매혹됐던 것은 이런 모습 때문이 아니었을까 뒤늦은 깨달음이 찾아들었다.

그제서야 이런 글귀도 보였다. 베토벤은 “세정의 비참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서글픔을 금할 수 없을 적에, 우리들의 곁으로 와 주는 사람이다.” 모든 추억이 결국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안이 되기 위해서 남는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마음 속에 두지 않아도 될 사람, 죽음이 내 곁에 데려다놓았다. 하지만 평은 하다. ●